

# 高麗 기와제작기술의 琉球傳來

최 규 성\*

## 목 차

1. 서론
2. 高麗 기와제작기술의 전래와 변천
3. 결론

## 1. 서론

고려 기와의 제작기술이 琉球에 전해진 시기는 12세기 중엽부터 14세기 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이 가운데서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인 三島의 1393년설보다는 1273년으로 보는 大川の 주장을 채택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에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1393년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93년시기 고려에서는 유구에서 발견되는 기와의 초기문양은 이미 유행이 지나갔고, 점차 어골문의 직선이 곡선화되면서 소위 청해능파문이라는 새로운 문양으로 변화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유구(류쿠)에 망명한 고려 와장이 굳이 고식문양을 고집하여 시문했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1270년대는 몽고제국과 고려가 강화를 체결한 시점으로 이 시기 몽고에 반대하여 결사항쟁을 주장하는 고려인들에 의해 강화정부가 구성되고 개경정부에 대항하는 삼별초난이 일어나게 되므로써 다수의 유이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강화에서 삼별초를 따라 이동하게 되었던 강도성부의 민간인들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도가 함락한 데 이어 제주도까지 함락되는 과정에서 뱃편으로 일본이나 유구로 망명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속에는 와장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 상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1) 「癸酉年 高麗瓦匠造瓦」의 癸酉年 干支에 근거를 두고 고려기와 제작기술 전래시기를 대체로 세가지 설로 요약할 수 있다.

1. 1153년설 (伊車錦禽 1937, 岡日 1960 등)
2. 1293년설 (大川 1962, 篤元 1972, 關口 1976 등)
3. 1393년설 (三島 1989)

있다. 한편 고려의 기와 제작술이 유구에 전해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 기와의 문양과 제작 기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내에서 그동안 발표된 고려기와관계 연구서들을 통해 유구에서 발견되는 「高麗瓦匠造瓦」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토대로 고려 기와제작기술의 유구전래와 그 변화를 함께 검토해 보겠다.

## 2. 高麗 기와제작기술의 전래와 변천

통일신라 말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기와 문양은 고려시대에 와서 가장 자유분방한 특성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양이 도안되어 시문되고 있다.

保寧郡 聖住面소재 「聖住寺址 출토 銘文瓦」(도 15)를 보면 일정한 규모의 장방형 방곽 내에 「聖住寺千佛當草」란 두줄로 새긴 銘文을 시문하고 그 上下段에 左右 대칭으로 정제된 어골문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편에 의하면 이미 이 절이 세워졌던 9세기 말에 장방형에 비교적 短段으로 구획된 방곽내 명문을 시문하고 그 上下段에 정제된 魚骨文이 새겨지는 양식이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면 施文具의 형태도 빨래방망이형의 긴 방망이로 정형화되면서 기와 문양도 長條화하는 대신 짧은 기와의 문양은 점차 소멸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시문용 방망이 무늬를 새길 때 기와 상단에서 하단까지 길게 하나나 두 개의 긴 단위 문양을 시문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고 무늬의 폭은 대략 5~6cm가 보통이었다. 기와의 사용 범위도 왕실 사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민가에도 널리 이용됨으로써 기와 제작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고 기와 문양의 분포도 특정 지역적인 局地性을 탈피하여 보다 광역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전국적으로 유행된 것이 魚骨文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문양은 고려 초기로부터 말기에 이르는 전 기간을 통해 고려 기와의 기본 문양으로 성행함으로써 고려 시대에 나타나는 복합문 역시 어골문을 기초로 하거나, 어골문을 수반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sup>

어골문은 「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彌勒藪龍泉房凡草瓦」<sup>3)</sup>(도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太平興國年間인 10세기 후반부터 이미 정형화되었으며 이러한 어골문은 14세기초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유행하였던 어골문은 서서히 형태가 변화하였다. 특히 「皇慶癸丑銘瓦」<sup>4)</sup>이후 어골문은 支線이 점차 曲線化 되어갔고 「至

2) 『益山 彌勒寺址 發掘報告書』 p.261 참조. 송 太平興國 5년은 980년으로 庚辰은 고려 경종 5년, 송 태종 5년에 해당됨.

3) 『앞 책』(주2), p.203 圖版 174-2.

4) 논산 開泰寺址 출토의 기와로 충남대 박물관에 소장. 皇慶癸丑은 고려충렬왕 5년(1313)에 해당된다.

正十八年銘瓦<sup>5)</sup>에 이르면 어골문이 정제된 맛을 잃고 있는 동시에 支線間에 지그재그형으로 바뀌어 감으로써 조선시대 소위 靑海波文의 연원을 이루고 있다.

고려 기와에 제작 간기와 와장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미륵사 출토의 「戊申年二月日大匠从才造瓦銘文瓦」<sup>6)</sup>(도 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戊申年은 목종 11년으로 태평흥국 5년으로부터는 28년후에 해당되는 해이다. 이러한 관행이 유구에서도 적용되어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가 나올 수 있는 연원이 되기도 하였다. 기와 제작틀 역시 고려시대에 와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까지 사용되어 오던 模骨 瓦桶이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사용된 흔적을 보이지 않는 대신 원통형 와통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키와는 모골와통이나 원통와통을 불문하고 와통에서 기와를 2분법으로 분리해 내는 경우 시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와의 양변을 밖에서 안으로 瓦刀를 그어 끊어내는 예가 많다. 통일신라 중기부터는 점차로 기와 안쪽에서 밖으로 향하여 와도를 그어 분리시키는 예가 많아지는데 이때 기와 한쪽이 와도를 밖에서 안쪽으로 그어 분리시키면 다른 쪽은 안에서 밖으로 그어 분리시켜 엇갈리게 와도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와의 양면 모두를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대어 분리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와통에 둘러 붙인 布로 인해 생긴 布文 역시 통일신라까지는 1×3mm의 굵고 깊은 무늬가 선명하게 찍힌 반면 통일신라 말기에 와서는 1×1mm나 그 이하의 세밀한 무늬가 새겨진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沖繩에서 기와가 건축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273년의 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해에 고려의 瓦匠이 이곳으로 와서 浦添城에 쓰일 기와를 만든 것이 오키나와 기와 제작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sup>7)</sup> 이후 고려 장인들로부터 기와제작술을 전수받은 오키나와인들에 의해 고려식 기와 제작이 계승되어져서 포침성 이외에도 首里城등의 궁전 지붕에 고려계 기와들이 얹혀지게 되었다.

浦添城 遺蹟은 14세기경 中山王 察度와 武寧의 二代 왕성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곳이다. 察度왕통은 2대 70여년간 (1350-1422) 유지되었는데 찰도왕이 1389년(고려창왕 원년)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비로소 러·유 양국간 국교가 성립하였다(도 16·17 참조). 이 때 유구는 왜구에 붙잡혀있던 고려인을 송환하는 동시에 유황 30근, 호초 30근, 소목 60조, 甲具 20 등을 진상하였다. 고려측은 왜구에 납치된 고려인의 송환과 함께 필요한 남방물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였으며, 유구 역시 중계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부를

5) 인제 寒溪寺址 출토의 기와로 강원대 박물관에 소장. 至正18년은 고려 공민왕 7년(1359)에 해당된다.

6) 『앞 책』(주2), p.203 圖版 174-3. 戊申年은 太平興國 5年 庚辰으로부터 28년이 지난 해로 穆宗 11년(1008)으로 볼 수 있다.

7) 大川清, 『기와의 美』p.209.

축적하여 유구통일을 공고히 할 필요로 인해 문화교류를 힘써 추진하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태조元年(1392) 8월 찰도왕이 사신을 보낸 이래 중종 19년까지 130여년간 40여차례나 내방하는 빈번한 문물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浦添城遺蹟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지하의 유물은 다행히도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화 57년의 발굴조사에서 대량의 고려 기와들이 출토됨으로서 유구와 고려의 문화교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발굴 보고서를 직접 볼 수 없었던 데다가 『유구의 古瓦』에 소개된 고려계 기와의 종류도 몇 가지 되지 않고 유구에서 수습된 고려계 기와의 종류를 다 열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선정하여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려기와의 비교 검토해 보려 한다.

여기서 출토된 고려계 기와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sup>8)</sup> (도 1)
2. 「高麗瓦匠造 銘文瓦」<sup>9)</sup> (도 4)
3. 「九葉素弁蓮花文 수키와」<sup>10)</sup> (도 5)
4. 「八葉複弁蓮花文 수키와」<sup>11)</sup> (도 7)
5. 「大天銘文瓦」<sup>12)</sup> (도 8)

먼저 「癸酉年高麗瓦匠造 銘文瓦」부터 살펴보자.

이 기와는 포천성에서 출토된 고려 기와의 주류를 이루는 기와로 기술적 변천과 함께 태풍 등으로 기존의 기와가 파괴되어 다시 제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대략 1~20년 간격을 두고 수차 다시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색깔 등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크기와 문양 및 제작기술상의 특징은 대체로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명문중 癸酉年은 1273년의 癸酉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아직 三山 왕조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로 구스쿠(グスク)시대에 해당하는데, 接司라 불리우던 호족의 난립시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瓦匠의 성명은 없지만 높은 수준의 기와 제작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문화적 우월감에서 「高麗瓦匠造」란 명문을 새겨 당당히 밝히고 있다.

제작상의 특징은 명문과 함께 그 문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명문은 가늘고 긴 목제로 추정되는 施文具의 중앙부에서 약간 위쪽에 장방형의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명문을 縱書

8) 大川清, 『앞 책』(주7), p.213.

9) 『浦添의 古瓦』 p. 184에서는 屋部川에서 다수 수습된 것으로 되어있다.

10) 大川清, 『앞 책』(주7), p.211.

11) 大川清, 『앞 책』(주7), p.212.

12) 大川清, 『앞 책』(주7), p.214.

로 새긴 다음 위아래와 주변에 어골문(羽狀文)을 도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골문이 주축이 된 속에 명문을 배치하는 형태는 고려시대 기와에서는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미륵사지 출토 「延祐 四年丁巳彌力銘瓦」<sup>13)</sup> (도 9)는 「癸酉年高麗瓦匠造」 명문와와 매우 유사한 문양과 명문 배치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이 밖에도 충주, 미륵리사지 출토의 명문와(도 10)나<sup>14)</sup> 「天歷三年庚午施主張介耳銘文瓦」<sup>15)</sup> (도 11) 역시 유사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天歷 三年은 高麗 충숙왕 13년 (1330)으로 延祐 四年보다 13년 뒤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 명문와를 제작하기 위해 模骨을 사용하였다는 일본측의 보고가 있지만 그것이 모골인지 아니면 와통인지의 여부는 추후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 시대까지 平瓦의 제작 경우 원형 와통에 布를 두른 위에 점토를 눌러 붙이고 밖에서 시문구로 두드려 단단히 한 다음 흙이 굳으면 瓦刀를 사용해 4등분하여 분리해낸 이후에 구워내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명문와 역시 원형 와통을 사용해 포를 두르고 그 위에 점토를 눌러 붙인 다음 빨래방망이 형태의 시문구로 두드려 단단하게 한 뒤 흙이 어느 정도 굳게 되면 예리한 工具를 사용해 4등분하여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와도로 자를 때 잘못되어 다시 칼질을 해 고친 흔적을 남긴 와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때 와도를 안에서 밖으로 그어 끊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고려의 기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와의 크기는 대략 가로 31cm 세로 43cm로 비교적 대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께도 1.5cm 정도 되고 개중에는 2cm를 넘는 것도 적지 않다.<sup>16)</sup> 후대에 제작된 明式 기와에 비해 크기가 대략 1.7배나 되고 중량 역시 무려 5배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이 기와들은 횡폭에서 상하의 차이가 근소하여 명식 기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기와의 소성 상태는 지극히 양호하여 태풍에도 굳건히 견디어 냄으로써 훗날 수리성 등에 재사용될 정도의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高麗瓦匠造銘文瓦」가 비교적 많이 발굴된 곳이 首里城의 서쪽 건물지인데 그것은 포첩성에서의 기와 끌어 모으기 작업의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勝連城 유적에서도 「高麗瓦匠造銘文瓦」가 약간 출토되고 있는데 그 역시 수리성의 경우와 동일한 작업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高麗瓦匠造銘文瓦」의 제작 시기는 함께 출토되는 여러 유물들과 연계시켜 비교 검토한 결과 14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문양이나 제작 수법은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와

13) 延祐4년은 고려 충숙왕 4년인 1317년(元仁宗代)에 해당하며 「癸酉年 高麗瓦匠造」의 癸酉年(1273)과는 44년의 격차가 있다.

14) 중원군 상모면 내옥리 寺址 出土(『충북의 기와』김봉식 소장)

15) 天歷3年은 고려 충숙왕 13년(1330)임.

16) 익산미륵사지 출토 어골문 시문 기와의 두께는 대략 1.5cm 정도이다.

17) 『浦添의 古瓦』p.178.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

포첩성에서 출토되는 고려계 기와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인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기와는 다른 기와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을 구워냈던 결과 이거나, 아니면 소성도가 높아 비교적 견고하여 오랜 세월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추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高麗瓦匠造銘文瓦」는 유구 현지에 와요를 설치하고 고려의 장인이 구워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와요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역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기와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데다 운송 도중 깨지는 양이 지나치게 많이 나옴으로써 원거리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구로 반출해 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高麗瓦匠造銘文瓦」가 고려의 일반기와에 비해 평기와의 경우 크기는 1.7배, 중량은 5배에 달하므로 한국에서의 반출은 더욱 곤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유구현지제작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한국의 경우 와요는 흔히 영조되는 건물의 인접지에 붙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유구의 경우도 고려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찌하였던 察度王權이 멸망한 中山의 장소가 浦添城이었다면 포첩성이 멸망당한 것은 1406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는 포첩성 내의 주요 가옥에는 고려 기와가 이어져 그 건물을 장엄하며 많은 비와 태풍으로부터 건물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포첩성 출토의 「八葉複弁蓮花文수기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기와는 灰色硬質瓦로 子房은 굽은 테를 돌려 구분하였고, 이 자방을 중심으로 끝이 갈라진 8葉의 퇴화된 單葉蓮花文이 배치되어 있으며, 周緣部에는 連珠文帶가 돌려 있어 비록 고려계로 분류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같은 유형을 찾아 볼 수 없어 고려양식이 유구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기와 가운데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을 찾아보면 전남 광주 壯元峰寺址 출토로 알려진 「蓮花文 수막새」(도 13)를 찾아 볼 수 있다.<sup>18)</sup> 이 기와는 회백색 경질와로 瓣端이 갈라진 8葉單瓣蓮花文이 배치되어 있고 子房에는 蓮子가 있으며 周緣에는 連珠文帶가 돌려 있는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크기는 14.6cm이다. 다만 크기에 있어 포첩성 수막새가 16cm 인데 비해 약간 적게 제작된 점이 다르고 조각 문양도 차이가 많지만 서로 비교해 보면 동일 계통의 와당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내공기증유물도록 No.943의 「蓮花文수막새」(도 14)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浦添城 출토의 「九葉素弁蓮花文瓦」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와당은 직경이 15.5cm로 소성 형태가 좋은 硬質 기와인데 子房은 圓圈을 두른 平面形이고, 자방을 중심으로 9葉의 細長한 蓮花文이 배치되어 있으며 周緣部는 2條의 圓圈을 두고 그 안에 蓮花文을

18) 『井內功寄贈遺物圖錄』 p. 259 No. 969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와서는 숫기와 와당의 경우 삼국시대 이래로 유행을 본 타원형에 가까운 연꽃잎 무늬 대신 해바라기 씨를 확대해 놓은 것 같은 세장한 연화문을 배치하는 것이 고려대 와당의 한 특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꽃잎의 수도 10여개로부터 9, 8, 7, 5 등 다양한 수의 조각이 시문되고 있었다. 포침성 출토의 「9葉素弁 연화문 와당」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고려 기와로 井內功 寄贈遺物 도록 No. 947(도 12)의 「연화문 수막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와는 素弁에 8엽의 세장한 연화문이 조각되고 있어 포침성 출토 9엽 연화문 와당과는 꽃잎의 수효만 다를 뿐 전체문양의 구성과 특색은 거의 동일한 양식을 지니고 있어 두 와당의 연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직경이 17.7cm의 크기를 갖고 있어 포침성 출토 9엽 연화문의 15.5cm와도 거의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괴산군 청천면 소재 空林寺址 출토의 9엽 소변 연화문 수키와(도 6) 역시 포침성 출토 9엽 소변 연화문와와 거의 동일한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어 양자의 문화적 연관관계가 긴밀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大天銘瓦」가 포침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명문의 배치나 어골문 등의 특색 이외에도 기와의 크기 및 두께 등이 모두 「高麗瓦匠造銘瓦」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大天銘文」의 위치가 시문구 중앙에서 다소 아래로 처진 곳에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大川靑은 유구인이 구운 고려적 특색을 가진 기와로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의 여부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琉球의 기와는 13세기 유행을 보았던 고려 기와의 제작 기술과 시문 도안 및 시문 방식이 전래 도입되어 14세기 말까지 대 유행을 보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먼저 고려기와 제작술이 유구에 전래된 시기는 127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의 「戊申年二月日大匠才造銘文瓦」는 유구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고려식 명문와인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의 조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두 기와는 제작간기와 와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긴 장방형 방곽 안에 명문을 넣고 그 상하단에 좌우대칭의 정제된 어골문을 시문하는 동일 문양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戊申年은 고려 穆宗 11年인 1008년으로 볼 수 있는데, 유구 기와의 명문에 나타나는 간기인 계유년과는 대략 170여년의 격차가 있다.

반면, 익산 미륵사지 출토의 「皇庚癸丑銘文瓦」는 무신년 제작기와와는 달리 어골문의 직선이 곡선화 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皇庚은 원 仁宗의 연호로 癸丑年은 1313년에 해

당하는 바, 이 기와가 만들어졌던 무렵에는 종래의 유행을 보였던 어골문의 지선이 곡선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46년뒤인 1359년에 제작된 익산 미륵사지 출토의 「至正十八年銘瓦」에 이르면 어골문이 정제된 맛을 잃고 지선의 형태가 지그재그형으로 바뀌어 지므로서 조선시대 기와의 소위 靑海波文의 연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구의 기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양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고려 기와 제작기술이 유구에 전래된 시기는 적어도 지정 18년 이전의 사실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시문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두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고려 기와 제작술이 최초로 유구에 전해진 것은 11세기에서 14세기 초까지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유구에서 최초로 제작된 고려기와의 시문수법이 대체로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고려에서 유행하던 정제된 직선의 어골문양과 함께 제작 간기와 제작인명을 명시한 명문의 시문 등과 유사한 양식을 갖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癸酉年高麗瓦匠造銘文瓦」의 癸酉年은 1273년 癸酉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1273년 무렵 고려에서는 삼별초의 난을 계기로 다수의 유이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잔존 강화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삼별초의 난은 그 거점이었던 진도와 제주도가 여원 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자 다수의 고려판 보트피플이 발생하게 되므로써 고려인 다수가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유구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속에 고려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양국의 공식적인 문물교류유무와 관계 없이 이 시기에 고려의 선진 기와제작술이 유구에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浦添城 출토의 「八葉素弁蓮花文수키와」는 灰色硬質瓦로 子房은 굽은 테를 둘러 구분하였고 이 자방을 중심으로 끝이 갈라진 八葉의 複弁蓮花文을 배치하고 周緣部에는 連珠文을 돌렸는데 고려에서 제작된 이와 유사한 양식을 가진 것은 井內功 寄贈遺物圖錄 No.917의 개성 만월대 출토 「蓮花文瓦」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만월대 출토 8엽 연화문 수막새는 직경이 17.7cm로 포침성 출토품에 비해 약간 크게 제작되었을 뿐 조각모양이 거의 일치하여 동일 계통의 와당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포침성 출토의 「九葉素弁蓮花文瓦」와 유사한 문양이 시문된 고려기와로 井上功 寄贈도록 No.948 「蓮花文 수막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화문 와당은 크기가 16.1cm로 포침성 출토 「九葉素弁蓮花文瓦」의 15.5cm와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두 고려기와들은 고려의 왕경이었던 개경 근처에서 제작 사용한 것인 바 유구에 소개된 연화문와당은 그 제작기술이나 시문 수법으로 볼 때 고려 중앙지대에서 유행하던 양식과 도안이 전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포침성 출토의 「大天銘瓦」는 명문의 위치가 중앙에서 다소 아래로 처진곳에 있고 정제된 어골문이 촘촘히 상하단에 모두 시문되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고려기와 제작수법에 다소 변화를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고려 기와 제작과정상 비교적 후대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川靑은 유구인이 구운 고려적 특색을 지닌 기와로 추측하고 있지만, 그 사실의 여부는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구의 기와는 13세기 후반에 고려기와 제작기술과 시문양식이 전래되어 제작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4세기 말까지 대유행을 보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고려기와 의 특징은 시문도안이나 제작기술이 고려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달했던 지방적인 것이 소개된 것이라기 보다 고려 중앙지대에서 13세기 유행했던 수법이 그대로 전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9. 『익산미륵사지 발굴보고서』.

김풍식·이재준, 1979. 『충북의 기와』.

大川靑, 『기와의 미(かわらの美)(문혀버린 일본고대사)』, 付琉球の古瓦, 現代教養文庫 566.

1994年 2月 1日字 浦添城 發掘調査報告 소개글, 『廣報うらそえ』.

『浦添의 古瓦』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內功寄贈瓦塼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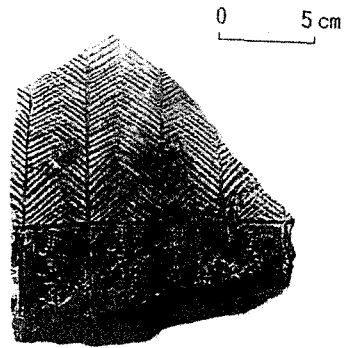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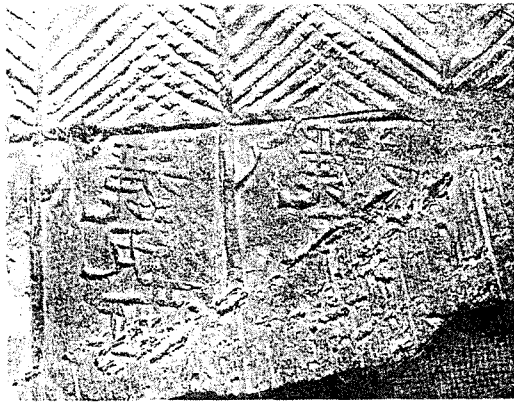
<도 1> 「癸酉年 高麗瓦匠造 銘文瓦」,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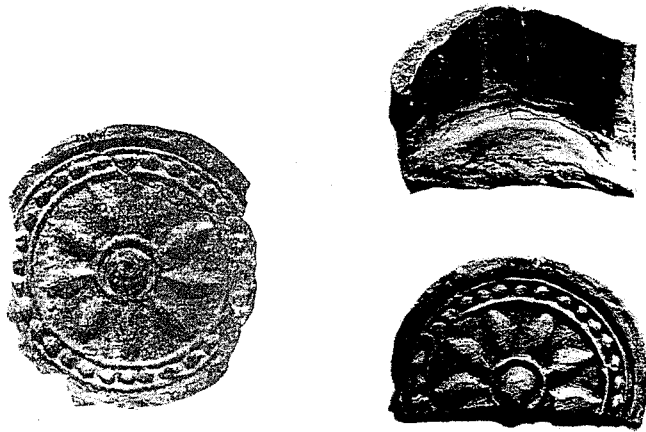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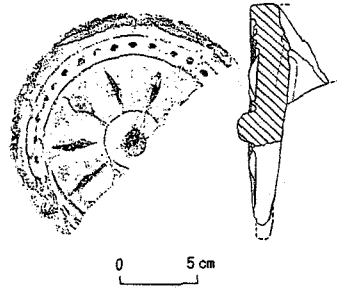
<도 2> 「太平興國五年 庚辰六月日彌勒藪龍泉房凡草 銘文瓦」  
미륵사지 발굴보고서 p.203 도판 174-2.



<도 3> 「戊申年 二月日 大匠从才造瓦」,  
미륵사지 발굴보고서 p.203 도판 174-3.



<도 4> 「高麗瓦匠造 銘文瓦」, 유구, 大川清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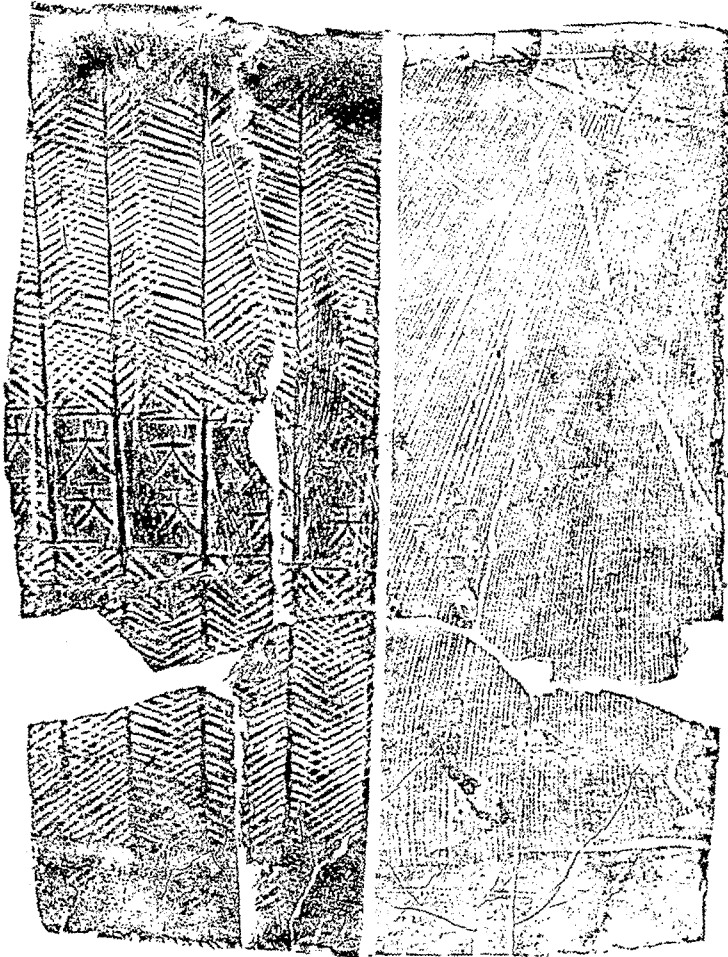
<도 5> 「九葉素弁蓮花文수키와」, 유구, 大川淸 p.211.



<도 6> 「九葉素弁蓮花文수키와」, 괴산군 청천면 空林寺址출토, 『충북의 기와』 No.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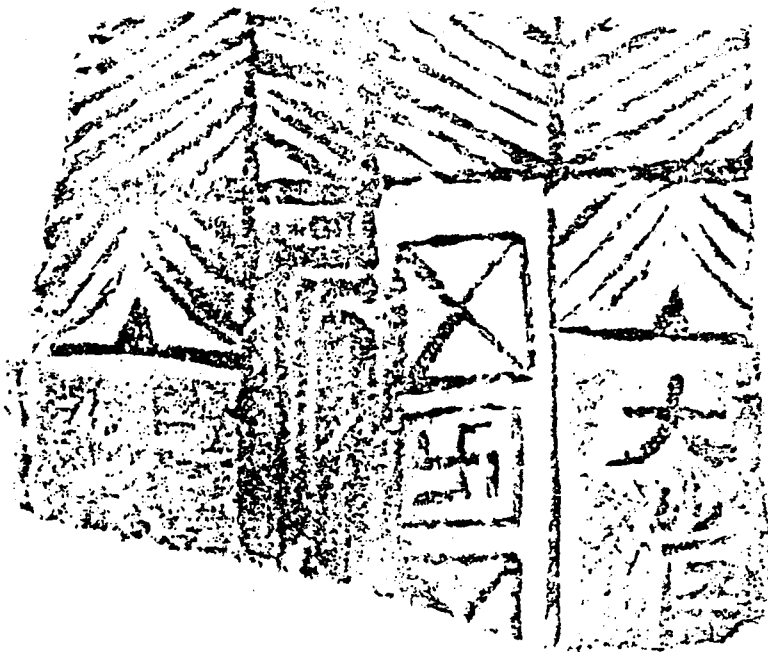
<도 7> 「八葉福弁蓮花文수키와」,  
유구, 大川淸 p.212.



<도 8> 「大天 銘文瓦」, 유구, 大川淸 p.214



<도 9> 「延祐四年丁巳彌力銘瓦」, 미륵사지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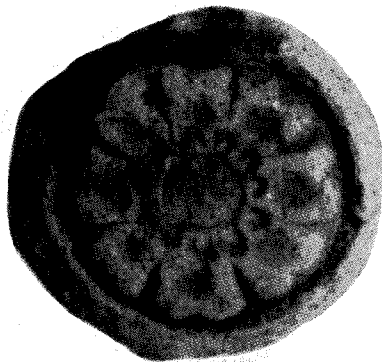
<도 10> 「忠北中原郡上笔面 彌勒里寺址出土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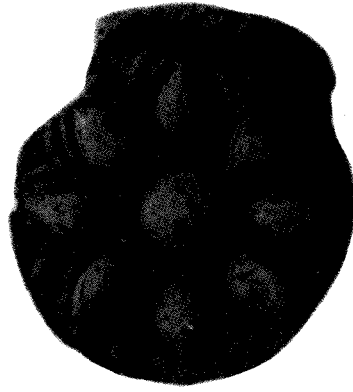
<도 11> 「天歷三年庚午施主張介耳 銘文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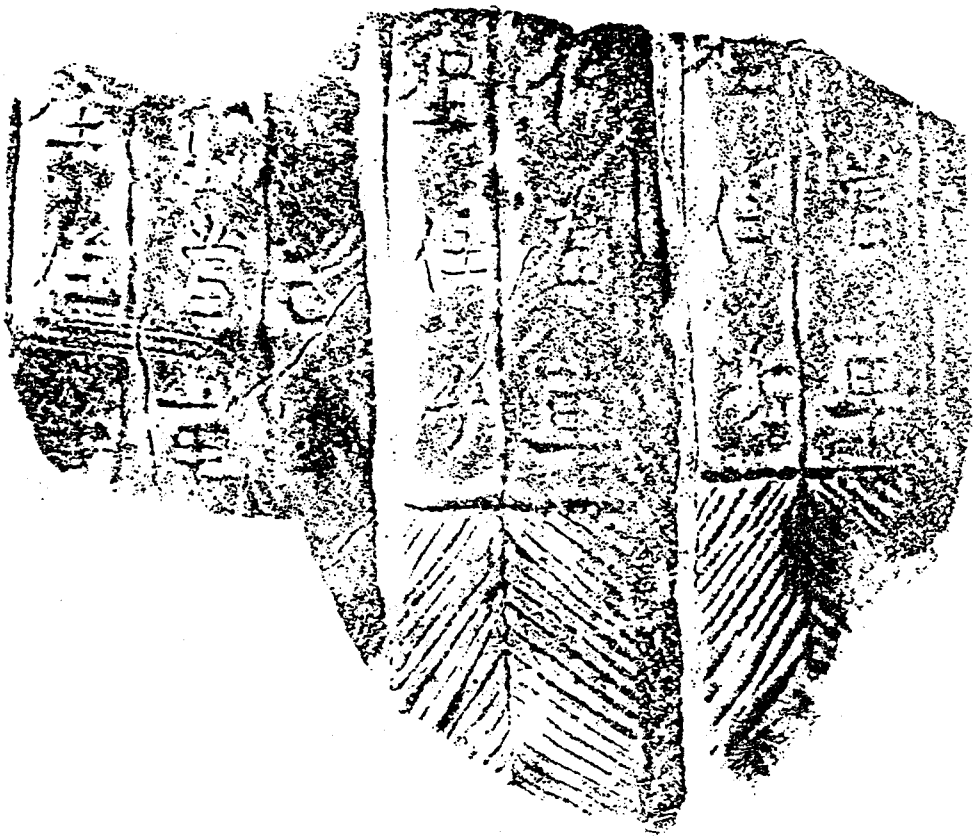
<도 12> 「蓮花文 수막새」, 井內功寄贈遺物圖錄 No.947.



<도 13> 「蓮花文 瓦范」, 井內功寄贈遺物圖錄 No.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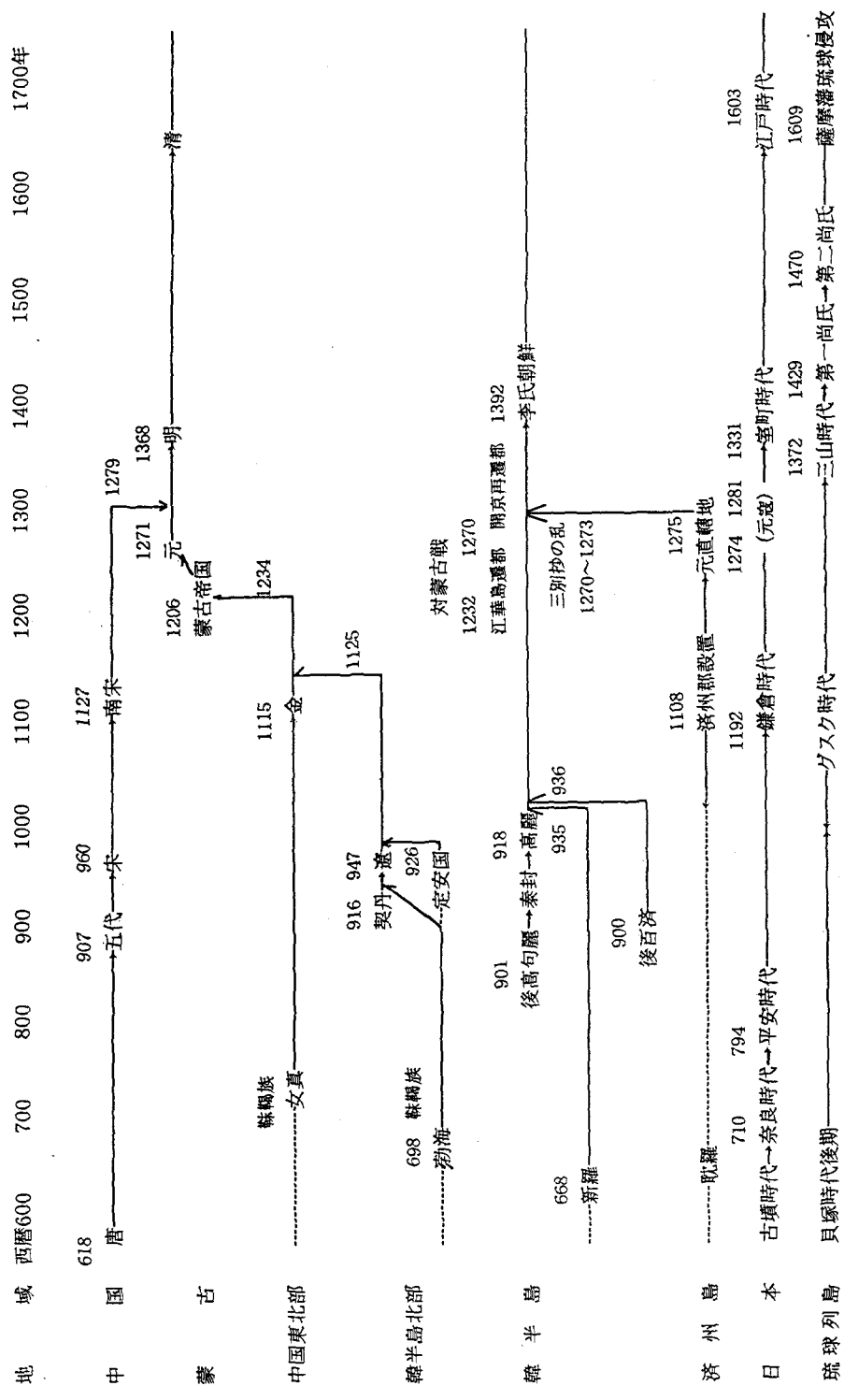


<도 14> 「蓮花文 수막새」, 井內功寄贈遺物圖錄 No.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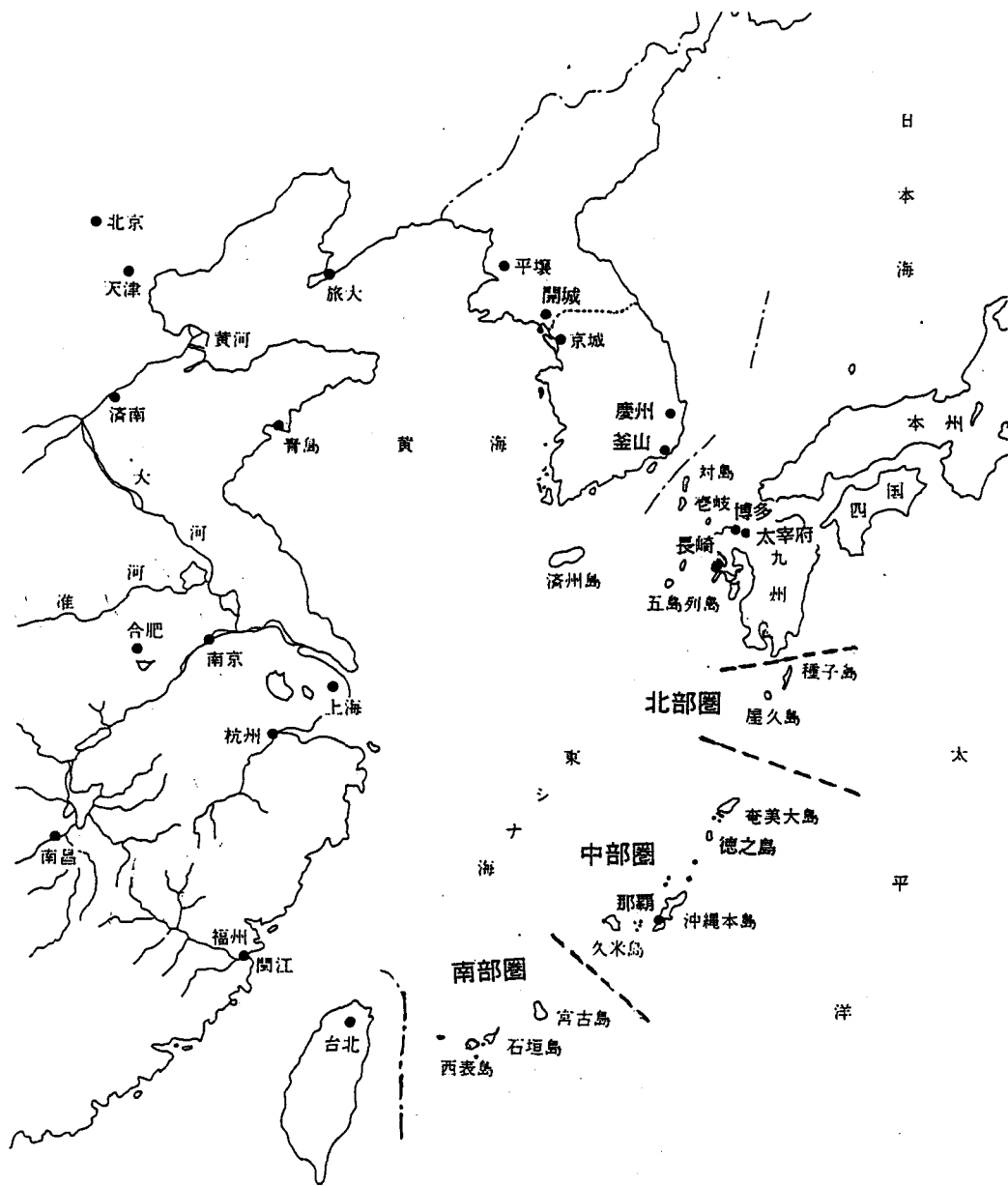


<도 15> 「聖住寺 千佛當草 銘文瓦」





<図 16> 동아시아 諸國 王朝變遷 略圖



<도 17> 韓琉略圖 吳 琉球列島文化圈區分